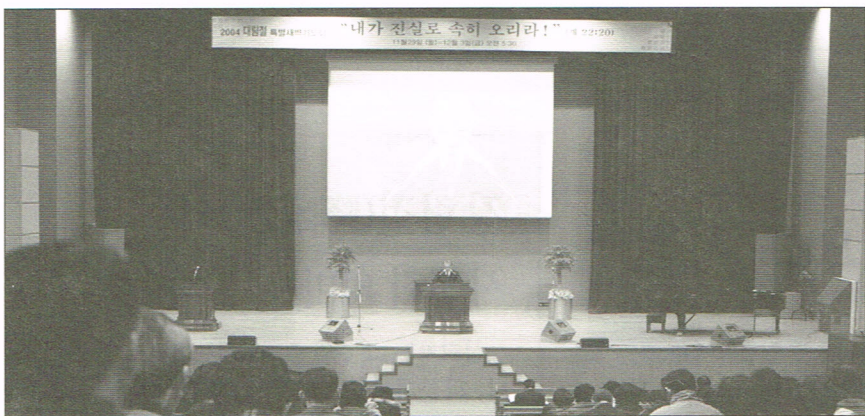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은혜중에 마쳐 매일 450여명 참여



지난 한주간은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웠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낙담한 사람들에게, 그늘진 사람들에게,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비통

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를 특별 새벽기도회 5일 간에 걸쳐 은혜롭게 전했다.

올해 전반기에 있었던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와 비교해 볼 때 참석한 성도들이 5일 동안 비교적 꾸준히 같은 인원수로 끝까지 참여한 것이 보기 좋았다. (2면에서 계속)

강림절(降臨節)의 사전적 의미

성탄절이 되기 이전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켜지는 절기 대강절(待降節), 또는 대림절(待臨節)이라고 한다. 이 절기는 서방 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지켜왔다.

부활절 이전에 준비기간으로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성탄절 이전 네 주간 동안 지켜지는 절기이다.

성탄절 이전 네 번째 주일이 첫 강림절이고 이날 강림절 화환에 준비된 네 개의 촛대 가운데 한 곳에 불이 붙여진다. 두 번째 주일에 다시 촛불이 하나 더 켜진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일은 모든 촛불에 불이 켜지게 된다. (2면에서 계속)

시온찬양대, 헨델의 메시아 연습 중

12월 24일 금요일 성탄절 전야제에 시온찬양대가 성탄칸타타를 마련하고 있다. 박치용집사의 지휘아래 시온찬양대 단독으로 헨델의 메시아 제1부와 3부를 부르게 된다. 지금 시온찬양대는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연습을 계시켰다. 앞으로 수요일예배 후에 연습시간을 갖고 토요일마다 모이게 된다. 12월 4일 토요일은 연습 전에 청년대원들의 단합시간도 마련하며 즐겁게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기대 바란다.

농어촌부, 화천 농촌교회방문

농어촌 봉사부에서는 11월 27일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강원도 화천소재 명성교회에 부원들이 참석하여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고 11월 28일 경기도 포천소재 나눔의 집을 수요성가대와 대원들 12명이 방문하여 찬양집회를 인도하였다. 나눔의 집은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우리교회와는 6월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이다. 12월 10일에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하여 우리교회에서 기증한 송아지 이름 명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교회에서는 주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중고컴퓨터 및 프린터 기증을 받는다.

유아세례, 하나님의 소유로 자라나게 하소서



부모들의 고백과 간증, 약속, 다짐으로 아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세분의 어머니가 감동적인 간

12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중예배실에서 하반기 유아세례식이 있었다. 문동학 담임 목사의 집례하에 열린 이번 세례식에서는 총 15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일정기간동안 아이의 부모가 세례교육을 받아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면 아이는 세례를 받게 된다.

증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를 하나님에 주신 귀한 은혜로 여기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함을 고백했고, 또 아이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키울 것을 다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성도들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제목의 찬송이 그 어떤 날보다도 잘 어울렸던 복된 자리였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길 바라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라와 우리민족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식이 마무리되었다.



군인교회공연 계획하며

성탄절을 맞아 드라마부에서는 수원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인교회 위문 공연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주님의 교회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완악해여사의 삶과 죽음’으로 크리스마스 전 주일 18일(주일)저녁 예배 때 그곳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지하식당에서 연습 중이다.

드라마부 문화부장인 이상경권사는 연극이라면 꼭 배우를 먼저 떠올리는 데, 음향, 조명, 의상, 소품준비, 조연출, 무대디자인, 분장등 사람이 많이 필요한 예술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12명의, 대부분 50대인 여성들로 이루어진 드라마부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4면에서 계속)

도서부

원활하고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도서관에서는 주일 오후에 보관된 장서를 정리할 봉사자 10명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도서관은 처음 성도들에게 책을 기증받아서 시작되었다. 현재도 도서관으로 책을 기증받고 있으나 금년 천만원의 예산으로 아동 관련 도서와 만화책을 구입했으며 매해 정기적으로 상정된 예산으로 계속 도서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바코드 작업도 이미 완료되어 현재 회원 등록인 경우 카드를 발급하여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현재 발급된 매수는 약 500개. 앞으로 도서실의 보강될 점은 해마다 책이 보완되는데 이

에 따르는 공간의 부족이다. 3부예배가 끝나면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이용객이 많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온다. 이에 따른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서실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되는데 토요일은 어와나로 인해 시간을 연장할 계획에 있다. 도서실 사용에 있어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조용한 도서실 분위기를 위해 주의를 바라며 책 반납이 기한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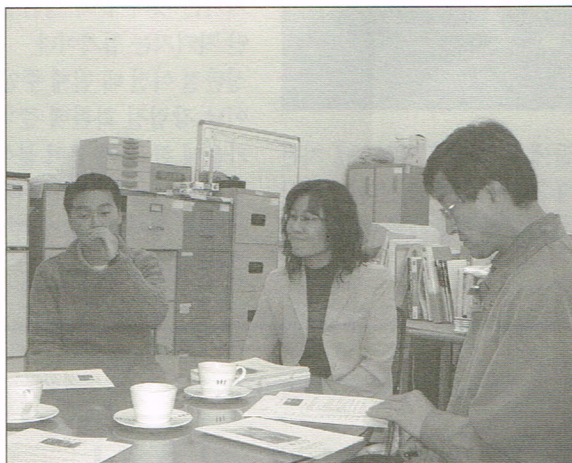
도시선교부

천안 '하늘꿈' 대안학교 정기적으로 지원

도시선교부는 날로 증가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난 10월 23일(주일) 정희성 목사와 도시선교부원 3명(김영화, 이호운, 강대준)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천안)를 탐방하였다.

이 학교는 고입 2개 반(15명), 대입 1개 반(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학업과 생활지도는 상근 교사 다섯 명과 자원봉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탈북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혼란과 이질감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 하는 것과 자원봉사 교사들이 부족한 것이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고려신학대학원이 학교시설을 빌려주는 등 기독교 단체들의 도움과 기도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년 7월 27일 연세대 수시입학에 3명이 합격(법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하는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교사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그룹 단위 교육 형태로 소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보살피 줄 수 있는 대안학교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였다.

탐방 후 도시선교부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키로 결정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안학교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가기로 했다. 12월에는 주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다 현재는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들의 근황을 살피고 탐방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1면에 이어서)

강림절(降臨節)의 사전적 의미

설교자는 그 주일에 해당하는 성서구절로 설교한다. 터툴리아누스의 글을 보면, 그 당시에 강림(Adventus)이라는 말은 이미 신이 예배 장소에 임재(臨在)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이 강림절은 갈리아 지방에서는 4세기에 에피파네스 절기(1월 6일) 앞에 금식하며 지켜졌다. 그리스 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크리스마스 이전에 금식일로 지킨다. 그러다가 6세기경 처음으로 성탄절 이전의 절기로서 등장하였다. 8세기의 아말라리우스의 메츠의 글을 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로 지켰음이 드러난다.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절기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목요모임

2004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았나요?

12월 첫 번째 목요모임은 예수전도단 대표인 문희곤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았는가 생각해 보자.

출애굽기 15장 22~27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출발한지 3일째 되는 날 마라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여 물을 얻어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에 맞지 않게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생전 처음으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려는 것이다. 부르심을 좇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

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 이스라엘은 마라 다음에 엘림에 도착한다.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최고의 곳, 엘림. 하나님은 마라 뒤에 엘림인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만 시키거나 슬프게 하는 곳으로 부르신다고 선입견을 갖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잠깐이요, 그 뒤 영광은 영원하였다. 고통 뒤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마라에서 말씀하실 때 비록 힘들어보여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믿음과

엘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순종할 수 있다. 고백하는 뜨거운 찬양과 소망의 메시지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을 놓아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새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

(1면에 이어서)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은혜 중에 마쳐

참석인원은 평균 450명 정도를 유지했으며,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특송 순서를 담당해준 당회원, 청년부, 구역지도자, 권사회, 안수 집사회와 빵과 우유를 나누어주고 차량 주차 안내를 담당한 봉사부원들의 수고가 컸다. 말씀이 증거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성도들이 받은 말씀에 의지하

여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와 간구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새벽기도회 때 매일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와나 클럽 불티단! 드디어 시작

어와나 전야제, 그 현장 이야기



11월 27일(토) 오후 3시 밀알실에서는 어와나 클럽 불티단 전야제가 열렸다. 낮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바람마저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던 손길을 멈추고 우선 사역자 모두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다. 축제 분위기의

모습이 정오가 되니 그 전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입구의 풍선인형 두 개가 방긋이 우리 불티단 친구들을 반겨 주었고, 교실에서는 또 다른 반원형의 화사한 풍선과 천정을 이리 저리 휘감은 풍선 장식이 있어 친구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채치있는 교사의 인도로 처음 불티단 찬양과 율동이 시작되었는데 모두는 너무도 잘 따라부르는 친구들을 보며 놀라웠고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청결함을 느꼈다.

교사들은 별명과 함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사회자의 위트와 좌중을 휘어잡는 분위기속에 게임도 즐기면서 각자가 소속 될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반 배정 순서가 이어졌다. 그 다음 불티단 인형이 등장하여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게 했으며 이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에 어린 친구들은 차분한 가운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외계인이 하나님을 찾는 풍자 연극이 진행되었는데 박수를 치며 재미있어 했다.

전야제 제1부를 이렇게 끝내고 2부가 열렸다. 2부는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와 불꽃놀이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먹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부모와 어린 친구들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시간이었다.

장작숯불 속에서 꺼낸 군고구마와 따끈따끈한 전빵은 색다른 별미가 되었다. 무려 예정시간보다 40분을 초과했지만 지루해하지 않았으며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좋은 전야제를 준비해주어 감사하다는 의견에 모든 사역자들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

수고한 불티단원들, 부모들, 전도사, 교사들, 관리 집사들 그리고 뒤에서 중보해 준 많은 교우들께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위기의 리더십 클래스, 판문점 방문기

지난 11월 30일 화요일, 안나구역과 “위기의 리더십(노혜미아서 연구)” 반 연합 판문점 방문이 있었다.

연일 쌀쌀하던 날씨가 봄날처럼 포근하다. 하나님께서 “안나님”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날씨이다. 아침 7시 20분 집결,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지각한 이가 없다.

일행 34명은 대절된 버스 안에서 “위기의 리더십” 반에서 준비한 뜨끈뜨끈한 떡과 음료 그리고 과일로 아침식사를 했는데, 새벽떡을 받아 뛰어오느라 반장 윤기선 집사의 얼굴이 별장게 달아올라와 있다.

“안나님”들도 열이 나셨는지 기사아저씨에게 히터를 꺼달라고 성화이다. 둘씩 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수학여행 가는 소녀들처럼 즐겁다.

통일대교 남단검문소에 여유 있게 도착하여 신분증 검사를 받는데 긴장감이 돈

다. 철조망으로 장식된 문을 통과해 바리케이드가 이리저리 널려진 도로와 무장한 헌병들을 지나면서 그 긴장감은 고조된다.

드디어 판문점에 도착해서 그곳 전용버스에 환승하려는데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며 한 분을 제외시킨다.

추리닝스타일이라고 안 된다. 요즘 평상복으로 거리에서도 흔히 입고 다니는 옷인데도 말이다. 베드로성당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소리가 어깨너머로 들린다.

안내자인 헌병에게 사정을 해보지만 단호하다.

판문점에 대한 슬라이드브리핑이 끝나고 세 분의 안나님들에게 문제가 있어 이 분들을 또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민등록증과 신청서에 기록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들께서 호적에 올린 것과 다른 이

름을 평소에 사용하시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긴장감을 주어 교육적 효과(?)를 노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 앞에서까지 저렇게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있나싶다.

그러나 일행은, 손자 혹은 아들뻘 되는 이들이 귀엽기만 하나보다.

어떻든 세 안나님들은 구제가 되어 그 엄청나게 높은 “판문점 안보관광”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남북회담 장소에 들어가 회담용 탁자와 의자를 만질 수 있었고 “북한 땅”까지 밟게 해준다.

까만 선글라스를 낀 헌병들과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데 일행 중 사진기를 가져간 이가 없다.

휴대하지 못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자유의 집 팔각정에 올라 북한의 건물인 판문각 앞에 동상처럼 서 있는 북한군인의 모습을 바라보니 서글픔이 밀려온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휴대한 헌병들이 일행을 호위한다.

바로 지척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1976년 8월 18일 소위 “도끼만행” 장소 그리고 겹겹이 쳐진 철조망이 더욱 일행을 우울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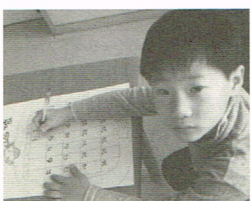
판문점 견학을 마치고 도라 전망대를 향하면서, 다시 한 번 보는 남한의 대성동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기정동마을 그리고 각 마을 앞에 세워져 있는, 세상에 가장 높음을 자랑하는(?) 국기게양대들이 일행의 마음에 서글픔을 더한다. 2~3달 만에 교체하는 태극기 제작비가 2~3백만 원이란다. 북한의 인공기는 태극기의 몇 배라 하니 무에 더 말하랴? 파주에서 연천으로 이동, 세상에서 가장 매운 김치찌개를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은 것으로 점심을 장식하고 제1땅굴 방문 후 김신조 침투로를 둘러보니 땅거미의 기미가 보인다.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가까워오자 이인호목사의 인도로 하루를 정리하고 작은 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 버스는 어느새 교회가 있는 동네에 들어서 있다. 버스에 내려서로 인사하니 저녁 6시가 조금 넘는다.

유년부 대림절 첫 번째 행사

‘두근두근 기다려요!’

대림절 달력 만들기



유년부에서는 지난주 일(28일) ‘대림절 달력 만들기’ 행사를 하였다. 아이

들이 아기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동안 각자 만든 달력 안에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주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등을 매일 매일 적어 보는 것이다. 대림절 두 번째 특별활동으로는 12월 5일 ‘기다림과 나눔의 저금통 만들기’를 할 예정이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금하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배고프게 보낼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저금통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에 아이들이 만든 저금통을 가져와서 이웃과 나눔 것이다. 12월22일에는 교회학교 전체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유년부에서는 ‘수화찬양’을 준비하고 있다. 유년부의 각 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뽑아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유소년축구 가을학기 종강

3기 유소년축구부는 11월 28일로 12주의 동안의 즐거웠던 시간을 정리하는 종강을 맞이했다.

가을학기는 봄 학기에 비해 날씨도 좋았고 아이들의 실력도 매우 향상되었다. 눈으로만 보았던 축구를 몸으로 익히고작전도 짜며 팀워크의 의미 또한 배웠던 시간이었다.

학기 중간에는 전 국가대표 황선홍선수가 방문을 했다.

대스타의 방문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흥분했었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다.

이번 학기는 9명이 개근상을 받았다. 12번의 기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함을 보여주었던 친구들이었기에 그 기특함을 칭찬하는 시간이었다.

12주 동안에 작은 사고 없이 아이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주었고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

이용수부장과 스태프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기도, 또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학부모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고3수련회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난 일행은 백담사 앞에서 점심을 먹고 미시령을 넘어 오후 4시쯤 속초 앞바다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해변에 미디골대를 설치하고 두 편으로 나누어 축구 경기를 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이지만, 상대편 골대를 향해 뛰는 모두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크게 웃어보기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1년 동안 고3의 짐을 함께 지고 온 서로를 격려했다. 축구를 마치고 쾌속 보트를 타며 그동안 쌓아 두었던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 보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인제에 있는 숙소로 이동, 모닥불을 켜 채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식사 후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 함께 찬양하고, 불꽃놀이도 할 수 있었다. 그룹이 켜져 기대했던 별은 많이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모닥불처럼 따뜻했다. 밤이 깊어가자 숙소로 돌아와 그동안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선생님들은

이제 곧 성인이 될 고3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하기도 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야하는 친구들로 인해 새벽 3시 30분에 출발, 6시 30분 특별새벽기도회 첫날 집회가 마칠 즈음에 교회에 도착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기쁨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살롬 찬양대 단국대 병원 위문 공연

살롬 찬양대(3부)가 12월 12일 성탄맞이 천안 단국대 병원에서 위문공연을 갖는다. 함께 참여하고 관람하실 성도들은 충무 박석진 집사에게 연락 바라며, 당일

13:30분에 학교 정문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한정된 버스 좌석 관계로 선착순으로만 탑승이 가능하니 미리 공지하길 부탁드린다.

(1면에 이어서)

군인교회 공연계획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배우적 기질을 지녀야 한다 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남

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연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011-243-9202(문화부장 이상경 권사)로 연락하길 바란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

주님의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2005년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섬길 선생님을 찾고 있다. 주님의 교회 교회학교는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10개의 부서와 유소년 축구클럽, AWANA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봄에 주님의 교회에서 시작되는 8주 과정의 교사대학을 수료했거나 2년 안에 수료할 사람이면 된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관리와 학년별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과 말씀 안에서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자원자는 1층 로비의 자원봉사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세례교인으로 교사대학을 수료했거나 2년 안에 수료할 사람

모집부서: 영아부(0~24개월), 주일 3부 예배시(11시30분~12시30분)
유아부(24~48개월), 주일 3부 예배시
유치부(48개월~취학 전), 주일 3부 예배시
썩트네(취학 전 유아), 주일 2부 예배시(9시30분~10시30분)
유년부(초등학교 1, 2학년), 주일 3부 예배시
초등부(초등학교 3, 4학년), 주일 3부 예배시
소년부(초등학교 5, 6학년), 주일 3부 예배시
레인보우(초등학교 전 학년), 주일 2부 예배시
중등부(중학교 전 학년), 주일 2부 예배시
고등부(고등학교 전 학년), 주일 2부 예배시

유소년축구클럽(초등학생-주일 오전 11시30분, 중학생-주일 오후 1시30분)
AWANA(2005년 현재 7-9세)토요일 오후 3시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토요일은 어와나 끝나는 시간(5-6시)까지 개관합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http://cafe.daum.net/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